

《黃帝八十一難經》中 疾病部分에 關한 研究

鄭閔喆 · 金谷辰 · 尹暢烈*

I. 緒 論

韓醫學은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고 부른다.) 에 根源을 두고서 발전해왔다. 《內經》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內經》의 理論을 더욱 발전시킨 古典으로는 《黃帝八十一難經》(이하 《難經》이라고 부른다.) 을 들 수 있는데, 그 뜻의 難解함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難經》의 “難”에 대한 의미의 分析으로는 “問難”, “難易之難”, “解釋疑難”의 세가지 說로 볼 수 있는데, 八十一個의 問題에 대하여 問答形式으로 이루어져 《八十一難》이라고도 한다.

《難經》의 著者에 대해서는 秦越人(扁鵲)이라고 하나, 여러 見解를 綜合하면 東漢人의 所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難經》에 대한 최초의 注釋家로는 三國時代 吳나라의 太醫令을 지낸 呂廣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의 冊은 현재 전하여지지 않으며, 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注釋書로는 元代 滑壽의 《難經本義》이고, 明代에 王九思가 편찬한 《難經集注》, 清代에 丁錦의 《古本難經闡注》가 있고, 日本에서는 丹波元胤의 《難經疏證》등 이후 여러 注家들에 의하여 數十種의 注解書가 전해온다.

《難經》은 內經의 思想을 이어받아 81個의 問題를 討論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內經》에 제시된 것으로 脈診, 經絡, 臟腑, 疾病, 鍼灸治療 方面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疾病部分에서는 傷寒을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의 五種으로 분류하였고(58년), 積聚를 臟腑에 分屬시켜 五臟에서 生하는 것은 積이 되고, 六腑에서 生하는 것은 聚가 된다고 認識해서 具體的으로 五臟의 積의 名稱

및 疾病등을 記述하였다(55년, 56년). 《難經》에서 疾病條에 대하여 言及되어 있는 部分은 第四十八難에서 第六十一難¹⁾까지인데, 그 중에서 第五十七難과 第五十八難에 대하여 各々の 注釋을 수집하여 縣吐로 하고, 그 내용을 《內經》과 비교검토하는 研究를 하기로 하겠다.

II. 研究 方法

本文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내용을 비교, 研究하기 위하여 各 難別로 原文에 縣吐를 하고 原文에 대한 解釋을 하였으며, 校勘字句解를 가하였고 各家注를 인용하여 縣吐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各 難에 관한 考察整理를 하였다.

가. 題目은 《難經校釋》에 의하여 달았다.

나.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하였다.

다. 縣吐는 전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라. 解釋은 原文의 縣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위주로 하되 各 注釋들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위주로하여 약간의 意譯을 하였다.

마. 出處는 《內經》의 篇名을 제시하였고 出處가 불분명한것은 ‘출처없음’이라고 하였다.

바. 校勘은 각 引用文獻 중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였다.

사. 字句解는 原文 중에서 難解한 部分에 대하여 各 注家들의 의견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위주로 비교 설명하였으며, 考察에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難經今釋

〈參考 註解書〉

著 者	書 籍	時代	備 考
滑 壽	難經本義	元	《本義》라 稱한다.
王九思	難經集注	明	《集注》라 稱한다.
張世賢	校訂圖註 難經		《圖註》라 稱한다.
徐大春	難經經釋	清	《經釋》이라 稱한다.
黃元御	難經懸解		《懸解》라 稱한다.
丁 錦	古本難經 闡注		《闡注》라 稱한다.
葉 霖	難經正義		《正義》라 稱한다.
蔡陸仙	中國醫學 匯海難經	民國	《匯海》라 稱한다.
南京中 醫學院	難經譯釋	中國	《譯釋》이라 稱한다.
南京中 醫學院	難經校釋		《校釋》이라 稱한다.
凌耀星	難經校注		《校注》라 稱한다.
王洪圖	難經		《難經》이라 稱한다.
唐湘清	難經今釋	臺灣	《今釋》이라 稱한다.
黃維三	難經發揮		《發揮》라 稱한다.
丹波 元胤	難經疏證	日本	《疏證》이라 稱한다.
藤萬卿	難經古義		《古義》라 稱한다.
加藤 宗博	盧經衰腋		《衰腋》이라 稱한다.
本間 祥白	難經之 研究		《研究》라 稱한다.

서 언급되는 것은 省略하였다.

아. 各家注는 아래에 제시할 引用文獻의 注釋을 시대순으로 縣吐하여 제시하였고, 縣吐 이외에 注釋 내용이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脚注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단 中國의 文獻을 앞에 제시한후에 日本의 文獻들을 제시하였다.

자. 考察은 各家注의 내용들을 토대로 各難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차. 考察中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설명과 各家에 대한 解說이나 注釋의 보충설명은 脚注로 처리하였다. (各家에 대한 설명은 《難經本義》의 〈本義引用諸家姓名〉을 참고하였다.)

카.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는 引用文獻은 《 》, 引用篇名은 〈 〉로 하였고, 文獻과 篇

名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 》로 하여 가운데에 방점을 넣었고, 校勘은 〈 〉, 字句解는 () , 各家注는 [] , 脚注는) 로 표시하였다.

타. 本 論考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引用文獻의 注釋 편차를 바꾸기도 하였다. 단, 전체적인 文意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파. 強調해야 할 文句가 句인 경우에는 ‘ ‘ 로 強調하였고 節인 경우는 “ ”로 強調하였다.

本 論考에 參考한 《難經》의 注解書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각 注解書의 시대와 순서는 千炳泰의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중 “難經의 注解書 目錄”²⁾을 참조하였다.

III. 研究 內容

1. 第五十七難 (五泄의 名稱과 症狀)

【原文】

五十七難曰 泄凡有幾¹⁾ 皆有名不¹⁾ 잇가

然이라 泄凡有五^하며 其名不同이니 有胃泄^하며 有脾泄^하며 有大腸泄^하며 有小腸泄^하며 有大瘕泄⁽¹⁾ 名曰後重⁽²⁾ 이라 胃泄者 飲食不化^하고 色黃^하하며 脾泄者 腹脹滿 泄注⁽³⁾ 하고 食即嘔吐逆⁽²⁾ 하며 大腸泄者 食已窘迫⁽⁴⁾ 하고 大便色白^하고 腸鳴切痛^하며 小腸泄者 溲而便膿血^하고 少腹痛^하며 大瘕泄者 裏急後重^하고 數至圜而不能便^하고 莖中痛⁽⁵⁾ 하니 此五泄之要⁽³⁾ 法也라

【解釋】

五十七難에 이르기를 泄에는 무릇 몇 가지가 있으며 모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라. 泄에는 무릇 다섯 가지가 있고 그 이름은 다릅니다. 胃泄과 脾泄과 大腸泄과 小腸泄과 大瘕泄이 있는데, 大瘕泄은 一名後重이라고도 합니다. 胃泄은 飲食不化하고

2) 千炳泰, 上揭書, p.40-42

黃色하며, 脾泄은 腹脹滿하고 泄注하며 食即嘔吐逆하며, 大腸泄은 食後窘迫하고 大便이 白色이고 腸鳴切痛하며, 小腸泄은 小便이 赤色이고 大便에 膿血이 있고 少腹痛하며, 大瘕泄은 裏急後重하고 자주 大便을 보려하나 能히 便을 볼 수 없고 莖中이 痛합니다. 이것이 五泄의 要法입니다.

【出處】 출처없음

【校勘】

- 〈1〉 《經釋》에는 皆有名 不然으로 띄워져 있는데 意味上 誤謬인 듯하다.
- 〈2〉 《匯海》에는 泄字가 빠져있고 注食, 卽嘔, 吐逆으로 配列되어 있는데 組版上의 誤謬인 듯하다.
- 〈3〉 《校注》에는 要字가 빠져있으나 意味上 別 差異는 없다.

【字句解】

- (1) 大瘕泄 : 腸癖으로 後世에서 말하는 痢疾이다.
- (2) 後重 : 肛門 下墜感이다.
- (3) 泄注 : 水瀉를 意味하는데 물이 흐르는 式으로 泄瀉하는 것을 말한다.
- (4) 窘迫 : 괴로울 寸, 핍박할 박 : 敵의 攻擊이 甚하여 괴롭다는 原意味이나 여기서는 食事만 하면 腹痛이 甚해진다는 意味로 쓰였다.
- (5) 《校注》에서 莖中痛은 腹中痛이 아닌 가 했는데, 裏急後重을 同伴하는 泄瀉時에 腹痛을 兼하는 境遇는 많아도 莖中이 痛한 境遇는 드물기 때문이라 하였다.

【各家注】

《本義》

此는 五泄之目이오 下文詳之라.
胃受病 故로 食不化오 胃屬土 故로 色黃이라.
有聲無物爲嘔오 有聲有物爲吐라 脾受病 故

로 腹脹泄注하며 食卽嘔吐而上逆也라.

食方已 卽窘迫欲利也오 白者는 金之色이라 謝氏曰 此는 腸寒之證也라.

溲는 小便也오 便은 指大便이니 而言溲而便膿血은 謂小便不闕하며 大便不이니 裏急後重也라.

瘕는 結也니 謂因有凝結而成者라. 裏急은 謂腹內急迫이오 後重은 謂肛門下墜니 惟其裏急後重 故數至圜而不能便이오 莖中痛者는 小便亦不利也라. 謝氏曰 小腸大瘕二泄은 今所謂痢疾也오 內經曰 腸癖이니 故下痢赤白者는 灸小腸俞是也니 穴在第十六椎下 兩旁各一寸五分 累驗이라. 四明陳氏曰 胃泄은 卽飧泄也오 脾泄은 卽濡泄也오 大腸泄은 卽溷泄也오 小腸泄은 謂凡泄卽小便先下而便血이니 卽血泄³⁾也오 大瘕泄은 卽腸泄也라

《集注》

楊曰 泄은 利也오 胃屬土 故로 其利色黃而 飲食不化焉이라 化는 變也오 消也니 言所食之物 皆完出不消變也라 虞曰 此乃風入於腸上 重於胃 故로 使食不消化요 風論曰 久風入中 卽爲腸風飧泄이니 飧泄爲食不消化也라

楊曰 注者는 無節度也니 言利下猶如注水不可禁止焉이오 脾病不能化穀 故로 食卽吐逆이라. 虞曰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脾 脾惡濕하니 濕氣之勝 故로 腹脹而泄注요 土性主信又 主味한대 今土病於味無信 故로 食卽吐逆이라 陰陽應象大論曰 濕勝卽濡瀉라하니 謂濕氣內 攻脾胃 卽水穀不分 故泄注라.

楊曰 窘迫은 急也오 食訖卽欲利迫急不可止也라 白者는 從肺色焉이오 腸鳴切痛者는 冷也오 切者는 言痛如刀切其腸之狀也라. 虞曰 大腸氣虛所以食畢而急思廁이오 虛卽邪傳於內 하야 眞邪相擊 故切痛也라.

楊曰 小腸屬心이오 心主血脈 故로 便膿血이오 小腸處在少腹 故로 小腹痛也라.

楊曰 瘕는 結也니 小腹有結而又下利者 是也라 一名後重은 言大便處疼重也오 數欲利至

3) 血出大小便(下二竅)

所 卽不利又痛引陰莖中하니 此是腎泄也라 按컨데 諸方家에 利有二十餘種한데 而此惟見五種者는 蓋舉其宗維耳라. 虞曰 腎開竅於二陰한데 氣虛 故로 數思圜後重而不能便 莖中痛이요 腎氣不足하야 傷於衝脈 故로 裏急也라 靈樞病總曰 凡五泄者는 春傷於風하면 寒邪留連乃爲洞泄이라하니 (按컨데 此文見素問生氣通天論한데 無凡五泄者句요 靈樞엔 無病總篇이요 惟論疾診尺篇云호대 春傷於風 夏生殭泄 腸癖이라하니 亦與此文 小異라 然卽 今之靈樞非虞氏所見之舊矣라) 此之謂也라. 丁曰 裏急者는 腸中痛이요 後重者는 腰以下沉重也니 餘皆舊經有注라.

《圖註》

泄之不同한데 固有是五者는 其病每起于脾胃之間이라 叔和云 濕多成五泄是也라.

邪客于胃하면 胃之下口不固하야 飲食入內에 不待脾臟磨하야 徑傳大腸而出하니 所泄之色 卽胃之色也라 故로 色黃이라.

注者는 驟然瀉也오 脾虛受邪不能消磨하면 水穀散胃之精氣于五臟六腑하고 水穀停留于胃中이라 故로 肚腹膨脹充滿而泄하고 驟食卽嘔吐而不下也라.

大腸虛而受邪하면 食畢而急欲登廁이요 大腸乃肺之府니 大便之色故曰(白) 이요 腸鳴切痛者는 虛寒相薄也라.

洩는 小便也요 便是 大便也니 小腸在少腹하여 邪客小腸하면 少腹所以作痛也라

瘕는 聚也오 急은 腹中欲去之甚也오 後重은 氣下墜也오 圜은 廁也오 裏急故數至圜이오 後重故不能便이오 莖中作痛은 小便不通利也오 腎關(開) 竅于一陰이니 腎經受邪하면 其泄如是라.

《經釋》

後重은 專指大瘕泄而言이니 蓋腎邪下結氣墜不升故也라

小腸之氣 下達膀胱하면 膀胱近少腹 故로 少腹痛也라

大瘕는 邪氣結於下하야 成瘕瘕而不散也라 大便氣不能達하면 卽邪氣移於小便 故莖中痛이라

(按) 此節은 分別病情이니 明曉精當其小腸大瘕泄 卽後世所謂痢疾이오 前三者卽 殭泄之類也라.

《懸解》

胃泄者는 甲木之剋戊土也라 胃以受盛爲職한데 乘以甲木之邪하야 胃府鬱迫하면 水穀莫容하야 則生吐泄이라 傷寒陽明少陽之泄이 皆此證也라 脾泄者는 乙木之賊己土也라 脾土濕寒하면 不能蒸水化氣하야 水穀並下 脾濕愈滋하야 土陷木遏 肝氣不達하야 風木衝決 開其後竅하면 則生泄注하니 內傷之泄 皆此證也라 食則嘔吐逆者는 脾陷則胃逆也라 大腸泄者는 金斂而木不泄也라 乙木陷於大腸하야 上達無路 欲衝後竅而出하니 而大腸斂之 不得暢泄 故로 窘迫欲後 腸鳴而痛切也요 大便白者는 金色也라 小腸泄者는 寒水鬱其丙火也라 小腸以丙火而化寒水하니 水寒生泄이 不過大便澆注而已요 不作膿血也라 病則丙火不化寒水하야 鬱於濕土之中하니 丙火不化寒水는 因於土濕이니 內熱淫蒸 膿血腐化라 寒水絕其上源 故溲溺淋瀝이오 風木鬱衝 故小腹痛作也라 大瘕泄者는 水土之鬱陷也니 水土濕寒하면 陰氣凝結하야 瘕塊累生이라 乙木不得溫升 陷衝後竅하고 而疏泄失政 未能順下라 故로 溲便頻數 裏急後重 而糞溺艱澀不利也라

泄雖有五나 唯胃泄爲膽胃病이니 其四皆脾肝之證이오 而癸水之寒 乃其根本也라

《闡註》

五泄名雖不同이나 然必由胃及脾라. 叔和云 濕多成五泄이라하니 此之謂也라 五泄俱後重 故以名曰後重이라 該之 下文各具其病狀也라

胃受邪 卽不能運化飲食이오 黃者胃土之色이오 邪乃或濕或寒之邪也라

凡六腑稟氣於胃하고 五臟稟氣於脾하니 脾胃受邪면 卽諸氣滯而不化 故로 脹滿驟注也오

氣不和必逆 故로 食即嘔吐也라

肺與大腸爲表裏니 因邪從脾來하면 脾氣不化 卽肺與大腸之氣亦不化하야 飲食入腹에 迫氣下行 故로 窘迫也라

小腸者는 泌別清濁之職하야 因氣不和卽清濁不分하야 欲溲小便而大便必同至하니 覺小腹窘痛而下膿血也라

瘕는 假也오 圜은 廁也오 莖은 小便也니 此는 邪傳於腎하면 腎乃開竅心二陰하야 腎氣不化하고 二便失常하니 大便欲便而不得便하야 以乎假便之狀이니 故曰瘕요 因裏急 卽數至圜이요 因後重 卽不能便이요 前陰不利 卽必莖中痛也라

《正義》

胃泄者는 甲木之剋戊土也오 胃主納穀한대 風木之邪乘之하면 胃府鬱迫하야 水穀不化하고 必脈弦 腸鳴이라 黃者는 胃土之色이라 經曰 春傷於風하면 夏生飧泄者 是也라

脾泄者는 脾土濕寒하야 不能蒸水化氣 故로 水穀並下하야 脹滿泄注也라 食即嘔吐者는 脾弱下陷 卽胃逆也니 必所下多水 脈緩 腹不痛이요 經曰 濕甚卽滯泄者 是也라

大腸泄者는 腸虛氣不能攝 故로 胃方實하면 卽迫注於下하야 窘迫不及少待也라 色白者는 大腸屬庚金이니 白은 金之色也라 腸鳴切痛者는 氣不和卽攻衝 故로 鳴而痛也라 經曰 清氣在下卽生飧泄者 是也라

小腸泄者는 小腸屬丙火한대 不化寒水면 鬱於濕土之中하야 內熱淫蒸하야 膿血腐化요 又小腸與心爲表裏하고 心主血하니 蓋氣不相攝而便膿血이요 小便亦不禁也라 小腸之氣鬱衝하야 下達膀胱하면 膀胱近少腹 故로 少腹痛也라 此는 卽血痢之類耳라

大瘕泄者는 邪氣結於下하야 成癥瘕而不散也요 裏急後重者는 腸氣急迫하야 肛門重墜也요 數至圜而不能便者는 皆癥結不散 故로 欲便而不爽也요 莖中痛者는 乃濕鬱爲熱하야 大便氣不能達하면 卽移於小便也라 此節은 古之滯下요 今名痢疾者也라

《匯海》

徐靈胎曰 後重一句는 專指大瘕泄而言이라 胃主納飲食한대 氣虛不能運卽泄이요 黃은 胃土之正色也라 大瘕는 邪氣結於下하야 成癥瘕而不散也라 裏急後重은 腸氣急迫하야 肛門重墜也라 惟裏急 故數至圜이요 惟後重 故不能便이니 皆瘕結不散之故也라 大便氣不能達하면 卽邪氣移於小便 故莖中痛이라

楊玄操注 注者는 無節度也니 言利下有如注水하야 不可禁止焉이라 脾病에 不能化穀 故로 食即吐逆이라 小腸屬心하고 心主血脈하니 故便膿血이요 小腸處在小腹하니 故小腹痛也라

丁履中曰 六府稟氣於胃하고 五藏稟氣於脾하니 脾胃受邪 卽諸氣滯而不化 故로 脹滿驟注也요 氣不化必逆 故로 食即嘔吐也라 肺與大腸爲表裏니 因邪從脾來면 脾氣不化 卽肺與大腸之氣亦不化하야 飲食入腹에 迫氣下行 故로 窘迫也요 氣不化卽攻衝 故로 鳴而痛也라

虞庶曰 大腸氣虛하면 所以食畢而急思廁이요 虛則邪傳於內하야 眞邪相擊 故로 切痛也라 腎開竅於二陰한대 氣虛故數思圜하고 後重而不能便하며 莖中痛이요 腎氣不足하야 傷於衝脈 故로 裏急也

日醫藤萬卿曰 扁鵲約爲五泄이요 且以藏府名蒙泄字라하니 上卽有所歸著하야 而至其審證施治면 卽有大裨於後人이요 後世方書의 汗牛充棟은 至其分泄痢之名이어늘 亦或倍蓰之하고 或什百之하니 乃使後人有多歧亡羊之惑이니 學者務本하면 卽其道自成矣리라

《疏證》

(楊) 泄은 利也니 胃屬土 故로 其利色黃而飲食不化焉이라 化는 變也며 消也니 言所食之物 皆完出不消變也라 注者는 無節度也니 言利下猶如注水하야 不可禁止焉이라 脾病不能化穀 故로 食即吐逆也라 窘迫은 急也니 食訖卽欲利하야 迫急不可止也라 白者는 從肺色焉이요 腸鳴切痛者는 冷也요 切者는 言痛

如刀切其腸之狀也라 小腸屬心하고 心主血脈故로 使膿血이요 小腸處在小腹 故로 小腹痛也라 瘕는 結也니 小腹有結 而又下利者 是也니 一名利重이라 後者는 言大便處疼重也라 數欲利至所即不利하고 又痛引陰莖中은 此是腎泄也라

(丁) 裏急者는 腸中痛이요 後重者는 腰以上沈重也라

(陳) 胃泄은 卽飧泄也요 脾泄은 卽濡泄也요 大腸泄은 卽洞泄也요 小腸泄은 謂凡泄卽小便先下 而使血하니 卽血泄也요 大瘕泄은 卽腸癖也라

(徐) 名曰後重은 此專指大瘕泄而言이니 蓋腎邪下結하야 氣墜不升故也라

《古義》

按內經컨대 謂泄痢居多하니 所謂飧泄 洞泄 濡泄 鶩瀉 瘕泄 暴注下迫이 是也라 其所謂痢는 卽曰腸澼 使血 曰下白沫 曰下膿血이라 扁鵲乃去繁而就簡 故로 脾胃大腸三言者는 此謂泄瀉요 小腸大瘕二泄은 此謂痢疾이니 軒岐謂之腸癖이요 仲景謂之滯下라하니 其義一也라 總言之컨대 卽爲五泄이요 泄一變至於後重 卽爲痢니 然卽泄與痢 固一源而二岐라 素問云 下爲飧泄 久爲腸癖이라하니 是也라 泄多屬寒하고 痢多屬熱하니 且其瀉與後重도 亦自有別이요 蓋靈素所載 其證多端하니 若無繫屬이라 扁鵲約爲五泄이요 且以藏府名蒙泄字上에 卽有所歸著하야 而至其心證施治하야 卽有大裨於後人이니 後世方書의 汗牛充棟은 至其分泄痢之名이어늘 亦或倍蓰之하고 或什百之하니 乃使後人有多岐亡羊之惑이니 學者務本하면 卽其道自成矣라.

《裏腹》

五泄之證 說見下文이라

張世賢曰 邪客於胃하면 胃之下口不固하야 飲食入內면 不待脾臟消磨 徑傳大腸而出하니 故飲食不化니 所謂完穀是也라 胃屬土 故로 色黃也라 脾病故로 水穀留胃中하야 肚腹脹滿하고 下卽驟然泄注하며 上卽食已嘔吐而上

逆也라 熊氏曰 窘迫은 極急逼迫之意라 大腸肺之腑 故로 色白하며 腸虛卽鳴하고 腸寒卽痛하며 大腸有寒邪之氣면 所以食未畢 而速急要去大便하야 而泄白色 腸鳴而割痛也라 (博) 按컨대 此證冬月最多하니 實腸寒之證也라 洩는 小便也라 小腸爲心之府요 心主血하니 邪熱在小腸하면 傳于下焦 故로 大便泄膿血하고 小便亦色赤하며 小腹痛이라 滑氏曰 瘕는 結也니 謂因有凝結而成者라 裏急은 謂腹內急迫이요 後重은 謂肛門下墜니 惟其裏急後重故로 數至圜而不能使이라 莖中痛者는 小便亦不利也라 謝氏謂 小腸大瘕二泄은 今所謂痢疾也요 內經曰腸癖이니 故로 下利赤白者는 灸小腸俞累驗이라

【考察】

本難은 五泄의 名稱과 그 症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五泄의 症狀은 水穀不化로 인한 泄瀉와 膿血 裏急後重의 痢疾등 多種의 病症을 包括한다. 이는 《內經》의 泄痢에 대한 명칭인 飧泄 洞泄 濡泄 鶩瀉 瘕泄 暴注下迫과 痢에 대한 명칭인 腸澼 使血 曰下白沫 曰下膿血을 포괄하여 간략히 취한 것인데 실제상에서는 症狀의 성질에 따라 泄瀉와 痢疾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胃泄 脾泄 大腸泄은 泄瀉라 했고, 小腸泄 大瘕泄은 痢疾이라 했다. 이에 대한 각각의 注釋을 보면 아래의 表와 같다.

本義	謝氏曰 小腸大瘕二泄은 今所謂痢疾也라
經釋	其小腸大瘕泄 卽後世所謂痢疾이오 前三者卽 飧泄之類也라.
正義	胃泄 脾泄 大腸泄은 泄瀉라 했고, 小腸泄은 血痢, 大瘕泄은 痢疾이라 했다.
古義	脾胃大腸三言者는 此謂泄瀉요 小腸大瘕二泄은 此謂痢疾이니 軒岐謂之腸癖이요 仲景謂之滯下라하니 其義一也라 總言之컨대 卽爲五泄이요 泄一變至於後重 卽爲痢니 然卽泄與痢 固一源而二岐라 素問云 下爲飧泄 久爲腸癖이라하니 是也라
裏腹	謝氏謂 小腸大瘕二泄은 今所謂痢疾也요 內經曰腸癖이니 故로 下利赤白者는 灸小腸俞累驗이라

‘名曰後重’에 대해 오로지 大瘕泄만을 가리

킨다고 하는 곳과, 五泄에 모두 後重이 있다는 두가지 見解로 볼 수 있는데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經釋	後重은 專指大瘕泄而言이라
闡注	五泄俱後重 故以名曰後重이라
匯海	《經釋》과 같다.
疏證	《經釋》과 같다.

五泄을 臟腑에 配屬한 것을 보면 胃泄, 脾泄, 大腸泄, 小腸泄과 함께 大瘕泄도 腎泄에 配屬한 곳이 보이고, 《懸解》에서는 五者를 다시 原因에 따라 分類하였다.

集注	數欲利至所 卽不利又痛引陰莖中하니 此是 腎泄也라
圖注	裏急故數至圍이오 後重故不能便이오 莖中 作痛은 小便不通利也오 腎關(開)竅于一陰 이니 腎經受邪하면 其泄如是라.
懸解	泄雖有五나 唯胃泄爲臆胃病이니 其四皆脾 肝之證이오 而癸水之寒 乃其根本也라
闡注	此는 邪傳於腎하면 腎乃開竅心二陰하야 腎 氣不化하고 二便失常이라
匯海	腎開竅於二陰한대 氣虛故數思圍하고 後重 而不能便하며 莖中痛이오 腎氣不足하야 傷 於衝脈 故로 裏急也라
疏證	(徐)名曰後重은 此專指大瘕泄而言이니 蓋 腎邪下結하야 氣墜不升故也라

2. 第五十八難 (外感의 種類와 그 脈象)

【原文】

五十八難曰 傷寒有幾며 其脈有變否오

然이라 傷寒有五나 有中風하며 有傷寒하며 有濕 溫하며 有熱病하며 有溫病한데 其所苦各不同이라⁽¹⁾

中風之脈은 陽浮而滑 陰濡而弱⁽¹⁾ 하며 濕溫 之脈은 陽浮而弱⁽¹⁾ 陰小而急하며 傷寒之脈은 陰 陽俱盛而緊瀯하며 熱病之脈은 陰陽俱浮 浮之而 滑⁽²⁾ 沈之散瀯하며 溫病之脈은 行在諸經 不知 何經之動也나 各隨其經所在而取之라⁽²⁾

傷寒有汗出而愈 下之而死者하며 有汗出而死 下之而愈者는 何也오

然이라 陽虛陰盛하면 汗出而愈 下之卽死하고 陽盛陰虛하면 汗出而死 下之而愈라⁽³⁾⁽²⁾

寒熱之病은 候之 如何也오

然이라 皮寒熱者는 皮不可近⁽³⁾ 席 毛髮焦 鼻 藁不得汗하고 肌寒熱者는 皮膚痛 脣舌藁 無汗하 며 骨寒熱者는 病無所安 汗注不休 齒本藁痛이라

(4)(4)

【解釋】

五十八難에 이르기를 傷寒에 기틀이 있으 며 그 脈을 分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答이라. 傷寒에 다섯가지가 있으니, 中風과 傷寒과 濕溫과 熱病과 溫病이 있는데 그 괴 로운 바가 各各 같지 않습니다. 中風脈은 寸 은 浮而滑하고 尺은 濡而弱하며, 濕溫脈은 寸은 浮而弱하고 尺은 小而急하며, 傷寒脈은 寸尺이 모두 盛하고 緊瀯하며, 熱病脈은 寸 尺이 모두 浮한데, 浮取하면 滑하고 沈取하 면 瀯하며, 溫病脈은 모든 經에 行하므로 어 느 經의 變動인지 알지 못하는데 각각 그 經 의 있는 바를 따라서 취합니다.

傷寒에 汗出하면 낮고 下하면 죽는 것이 있고, 汗出하면 죽고 下하면 낮은 것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答이라 陽虛陰盛하면 汗出하면 낮고 下하면 죽으며, 陽盛陰虛하면 汗出하면 죽고 下하면 낮습니다.

寒熱의 病은 어떻게 살펴야 합니까. 答이 라 皮膚에 寒熱이 있으면 皮膚를 자리에 대 지 못하고, 毛髮이 焦하고 鼻藁하여 답나지 않으며, 肌肉에 寒熱이 있으면 皮膚가 아프 고 脣舌이 藁하여 답이 없으며, 骨에 寒熱이 있으면 病이 있어 편안한 바가 없고 답이 나 서 그치지 아니하고 齒本이 藁(마르면서) 하 며 아프게 됩니다.

【出處】 출처없음([1]-[3])

《靈樞 寒熱病篇》 ([4])

【校勘】

(1)陽浮而弱의 浮는 《本義》 《哀腋》 《古義》에서만 浮라하였고 나머지 八個注에서 는 濡라 하였다.

(2)浮之而滑에서 《疏證》 《正義》에서는 浮之滑이라 하였다.

【字句解】

(1)陽은 寸部脈을 지칭하고, 陰은 尺部脈을 지칭한다.

(2)陰盛은 寒邪가 盛한 것이고, 陽盛은 熱邪가 盛한 것이고 陽虛는 陽氣不足을 말하고, 陰虛는 陰津虛損을 말한다.

(3)近은 '가까이 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附와 같다.

(4)藁는 乾燥의 뜻이다.

【各家注】

《本義》

〔1〕變은 當作辨이니 謂分別其脈也라. 紀氏曰 汗出惡風者는 謂之傷風이오 無汗惡寒者는 謂之傷寒이오 一身盡疼하며 不可轉側者는 謂之濕溫이오 冬傷於寒하여 至夏而發者는 謂之熱病이오 非其時而有其氣하여 一歲之中에 病多相似者는 謂之溫病이라

〔2〕上文은 言傷寒之目이오 此言其脈之辨也라 陰陽字는 皆指尺寸而言이라. 楊氏曰 溫病은 乃是疫癘之氣오 非冬感于寒이니 至春變爲溫病者는 散行諸經 故로 不可豫知니 臨病人而診之하여 知在何經之動하여 乃隨而治之라 謝氏曰 仲景傷寒例云 冬時嚴寒엔 萬類收藏하니 君子周密 卽不傷於寒이니 觸冒者는 乃名傷寒耳라 其傷於四時之氣하얀 皆能爲病이니 以傷寒爲毒者 以其最成殺厲之氣也니 中而卽病者는 名曰傷寒이오 不卽病者는 寒毒藏於肌膚하여 至春變爲溫病이오 至夏變爲暑病이니 暑病者는 熱極而重於溫也라 又曰 陽脈浮滑 陰脈濡弱한대 更遇於風하면 變爲風溫이라 今按仲景例컨대 風溫與難經中風脈同이나 而無濕溫之說이니 難經言溫病은 卽仲景傷寒例中 所言溫瘡 風溫 溫毒 溫疫의 四溫病也라 越人言其概而未詳이나 仲景卽發其秘而條其脈하여 可謂詳矣라 龐安常傷寒總論云 難經載五種傷寒하고 言溫病之脈 行在諸經 不知何經之動 隨其經所在而取之라하니 據難經溫病컨대 又是四種이니 傷寒感異氣而變成者也라 所以王叔和云 陽脈浮滑 陰脈濡弱 更遇於風 變成風溫이오 陽脈洪數 陰脈實大 更遇淫熱

變爲溫毒이니 溫毒爲病最重也요 陽脈濡弱 陰脈弦緊 更遇淫氣 變爲濕溫이오 脈陰陽俱盛 重感於寒 變爲溫瘡이니 斯乃同病異名 同脈異經者也니 所謂隨其經所在而取之者 此也라 龐氏此說 雖不與難經同이나 然亦自一義例하니 但傷寒例言溫疫而無濕溫하고 叔和言濕溫而無溫疫이라하니 此亦異耳라

〔3〕受病爲虛요 不受病者爲盛이니 唯其虛也 是以邪湊之하고 唯其盛也 是以邪不入하니 卽外臺所謂 表病裏和 裏病表和之謂니 指傷寒傳變者而言之也라 表病裏和 汗之何也며 而反下之면 表邪不除裏氣復奪矣요 裏病表和 下之何也며 而反汗之면 裏邪不退 表氣復奪矣니 故云死라 所以然者는 汗能亡陽이오 下能損陰也니 此陰陽字는 指表裏言之라 經曰 誅伐無過 命曰大惑이라하니 此之謂歟인저.

〔4〕靈樞 二十一篇曰 皮寒熱者는 不可附席 毛髮焦鼻葉腊 不得汗하니 取三陽之絡하여 以補手太陰하고 肌寒熱者는 肌痛 毛髮焦而脣槁腊 不得汗하니 取三陽於下하여 以去其血者하고 補足太陰以出其汗하며 骨寒熱者는 病無所安 汗注不休 齒未槁하니 取其少陰股之絡한대 齒已槁면 死不治라 愚按此蓋內傷之病으로 因以類附之컨대 東垣內外傷辨에 其兆於此乎인저

《集注》

〔1〕楊曰 自霜降至春分傷於風冷하여 卽病者謂之傷寒이오 其冬時受得寒氣至春又中春風而病者謂之溫病이오 其至夏發者多熱病이오 病而多汗者 謂之濕溫이오 其傷於八節之虛邪者 謂之中風이라 據此經言溫病卽 是疫癘之病이오 非爲春病也니 疫癘者謂一年之中에 或一州一縣若大若小俱病者是也라

〔2〕丁曰 肌肉之上陽脈所行하니 輕手按之狀若太過 謂之滑이오 肌肉之下 陰脈所行하니 重手按之不足謂之弱이니 此者是按之不足舉之有餘 故知中風也라 陽濡而弱者는 肌肉之上에 陽脈所行濡弱者니 是濕氣所勝火也요 肌肉之下에 陰脈所行 小急者는 是土濕之不勝木

故見小急이니 所以言陽濡而弱陰小而急也라 按之覺往來如有 舉之如無者는 謂之弱也니 關以前浮滑尺中濡弱者也요 小는 細也오 急은 疾也라 陰陽俱盛者는 極也니 謂寸尺脈俱盛極而緊瀦하니 此者中霧露之寒也니 水得風寒而凝結故知腎得寒而有此脈見也라 陰陽俱浮者는 謂尺寸俱浮也라 浮之而滑者는 輕手按之而滑이니 是心傷熱脈也요 沈之而散瀦者는 沈手按之而散瀦이니 是津液虛少也라 肺者金主氣요 散行諸經이니 不知何經虛而傳受此邪 故로 隨其所在取其病邪也라

虞曰 濕溫之病 謂病人頭多汗出이로대 何以言之요 寸口謂陽脈見濡弱이니 此水之乘火也요 本經曰 腎主液入心成汗하니 此之謂也라 如切繩狀曰緊이요 如刀剖竹曰瀦이라

楊曰 輕手按者는 名浮요 重手按者는 名沈也라 兼鬼癘之氣하야 散行諸經 故로 不可豫知요 臨病人而診之하야 知其何經之動即爲治也라

[3] 丁曰 其陰陽盛虛者는 謂非言脈之浮沈也요 謂寒暑病異燥濕不同하니 人之三戰六府有十二經皆受於病한대 其手太陽少陰屬火 主暄하고 手陽明太陰屬金 主燥하고 手少陽厥陰屬相火 主暑하니 此是燥暑暄六經以通天氣하야 病即不體重惡風而有燥라 素問曰 諸浮躁者病在手 是也라 若以承氣下之即愈로대 服桂枝取汗 汗出即死라하고 其足太陽少陰屬水 駐韓하고 足陽明太陰屬土 主濕하고 足厥陰少陽屬木 主風하니 此是風寒濕六經以通地氣하야 病即體重惡寒하니 故素問曰請浮不躁者 病在足 是也라 若以桂枝取汗 汗出即愈로대 服承氣下之即死라하니 此是五藏六府配合陰陽大法也라 所以經云陽虛陰盛汗出而愈 下之而死요 其陽盛陰虛汗出而死 下之而愈는 此義非反顛倒也라

楊曰 此說 反到於義不通不可依用也니 若反此行之乃爲順爾인저

虞曰 諸經義皆不錯此經例義 必應傳寫誤也라 凡傷寒之病脈浮大而數한대 可汗之即愈는 病在表也요 脈沈細而數한대 可下之即愈는 病在

裏也니 推此行之萬無一失이라

[4] 丁曰 肺候身之皮毛오 大腸爲表裏하니 藏病即寒이오 府病即熱 故言皮寒熱也요 皮不可近席者는 謂手三陰三陽法天하니 天動故病即不欲臥近席也요 毛髮焦 鼻槁不得汗者는 謂下有心火爆熱之爲病이요 不得汗之 汗之即死下之即愈는 謂肺主燥故也라 脾候身之肌肉하야 胃爲表裏니 藏病即體寒 府病即體熱 故로 言肌寒熱也라 皮膚痛 脣舌槁는 脾者 應土 土主濕 故皮膚津液出體重 其津液外泄即脣舌槁病名 濕燥 無以汗之 汗之即腸胃瀉不通하고 下之即泄注하니 此者是濕氣之爲病이니 當溫中調氣也라 腎主骨 與膀胱爲表裏하니 病在陽即身熱體重 惡寒하고 在陰即寒 病無所安이요 腎主水 汗注不休 齒本槁痛 汗即愈 下即死는 陰盛陽虛故死라

楊曰 五臟六腑皆有寒熱이로대 此經惟出三狀이요 餘皆闕也라

《圖註》

[1] 風邪所中其病惡風하니 是謂中風이요 嚴冬之時爲寒所冒即是發熱而惡寒하니 是謂傷寒이요 嘗傷于濕因而中暑濕熱相薄하야 發而爲病一身監痛是謂濕溫이요 冬傷于寒 至夏方發熱而惡寒 頭痛 身疼하니 是謂熱病이요 年分寒溫失時 印鑑不正之氣하야 病即無分長少一概相似하니 是謂溫病이니 俗天謂天行是也니 病之所苦有此五者之不同也라

[2] 風之中人에 自外而入肌肉之上 陽脈所行經이니 手按之狀 若太過요 肌內之下 陰脈所行이니 按之不足 謂之濡弱이니 此乃按之不足 舉之有餘하니 故知中風也라 濕溫之脈에 陽濡而弱者는 陰盛陽虛也요 陰小而急者는 陰氣盛也라 傷寒之脈은 尺寸俱盛因寒而熱 故見緊瀦이라 熱病之脈은 尺寸俱浮한대 浮即輕手取之 滑者熱脈也요 沈即重手取之 散瀦津液少也라 溫病之脈은 蓋由不正之氣 散行諸經하야 難別何經所受하니 必審其病之屬于何經而後可以施治也라

[3] 陽虛陰盛表病裏和也니 表病宜汗 故汗

出而病愈하고 錯下之即死也요 陰虛陽盛裏病表和也니 裏病宜下 故로 下之而病愈 錯汗之即死也라 如此死者는 粗工不明表裏而醫殺之耳니라

〔4〕寒熱者는 謂晚寒且熱也니 肺主皮毛하고 開竅于鼻하니 肺受邪即皮膚而不可近席이요 眞邪交戰故寒熱往來요 毛髮焦而鼻枯槁也라 汗從毛孔而出하니 邪居之即閉而無汗矣라 脾主肌肉 開竅于口하니 脾受邪即脾氣不運而皮膚作痛하고 津液不能溫于肉裏以管脣口하니 故脣舌乾燥而汗不出也라 骨屬腎 腎主液骨하니 骨發寒熱即腎不能安하야 腎液外泄 故로 汗注不止하니 是即內無所養하야 齒根枯槁而疼痛矣니라

《經釋》

〔1〕王叔和編次 仲景傷寒論略例云호대 中而即病者 名曰傷寒이요 寒毒藏於肌膚하야 至春變爲溫病이요 至夏變爲暑病이니 暑病者 熱極重於溫也라 又第四篇에 先序痙溼暍三證이니 痙即傷寒之變證이요 暍即熱病이요 溼即此篇所謂濕溫也라 又傷寒論太陽上篇에 亦首舉中風傷寒溫病證脈各異之法하고 素熱病論云호대 今夫熱病者는 皆傷寒之類也라하고 又云호대 凡病傷寒而成溫者는 先夏至日爲病溫이요 後夏至日爲病暑라하니 即此五者之病을 古人皆謂之傷寒이요 與難經淵源一轍이라 後世俗學不明其故하고 遂至聚訟紛紜하야 終無一是하니 是可慨也라 其詳須讀熱病論과 及傷寒論하야 自知之니라

〔2〕(中風脈) 陽은 陽經之脈이요 陰은 陰經之脈이라 浮滑은 陽脈之象이요 風爲陽邪故浮滑在陽經也라 傷寒論云 太陽之爲病에 脈浮라하고 又云 浮即爲風이라하고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 云호대 滑者는 陽氣盛하고 微有熱이라하고 又素平人氣象論에 云호대 脈滑曰病風이요 陽盛即陰虛 故陽脈濡而弱也라 하니라

(濕熱脈) 濕熱傷陰 故로 陽脈即無氣而濡弱하고 陰脈即邪盛而小急也라. 按컨대 此三句

는 疑在傷寒之脈 二句下라

(傷寒脈) 寒邪中人에 榮衛皆傷 故陰陽俱盛이라 緊者는 陰脈之象이라 傷寒論에 云호대 脈陰陽俱緊者는 名曰傷寒이라하고 又云 諸緊爲寒이요 濡者는 血氣爲寒所凝不和利也라하니라 靈邪氣臟腑病形篇에 濡者는 多血少氣微有寒이라하니라

(熱病脈) 陽氣盛 故脈俱浮라 金匱要略에 云호대 浮脈即熱이라하니라 浮之謂浮取之오 沈之謂沈取之也라 滑即陽盛於外오 散濡即陰衰於內也라

(溫病脈) 言溫病所中之經은 不一病在何經하니 即脈亦見於所中之經也라 按컨대 溫病所現何脈은 越人無明文이니 當以傷寒論補之論에 云호대 風溫爲病에 脈陰陽俱浮가 是也라 至於溫病之變 即叔和傷寒例에 有變爲溫瘡 風溫 風毒 溫疫 等에 各詳脈證이니 亦可參考인저

〔3〕傷寒例에 亦有陽盛陰虛는 汗之即死 下之即愈오 陽虛陰盛은 汗之即愈 下之即死之文이라 諸家釋之에 不一其說이라 成無己註에는 即以陽邪乘虛入府하야 爲陽盛陰虛오 陰邪乘表虛 客於榮衛하야 爲陽虛陰盛이라하고 外臺秘要와 及劉河間 傷寒眞格에는 俱以不病者爲盛이요 病者爲虛라하고 活人書에 以內外俱熱을 爲陽盛陰虛오 內外俱寒을 爲陽虛陰盛이라하고 惟王安道溯洄集에 即以寒邪在外 爲陰盛可汗이요 熱邪內熄 爲陽盛可下라하니 此說最爲無弊니라 若不病者實 病者爲虛之說은 與表病裏和 裏病表和之說과 相近이라 但虛實二字 其義終未安也라

〔4〕寒熱은 忽寒忽熱者言이요 候之는 言候其病在何處也라

寒熱在皮는 邪之中人에 最淺者也라 不可近席은 邪氣在皮하야 不能着物也라 肺主皮毛 開竅於鼻 故로 皮有邪即 毛髮焦乾而鼻枯槁不澤也라 不得汗은 榮衛不和也라

皮之內即肌肉也오 肌肉之邪 由皮膚而入 故로 痛이라 脾主肌肉 開竅於口 故로 肌有邪即 脣舌이 皆受病也라

骨受邪即病最深 故로 一身之中 無所得安也
 라 腎主骨又主液이오 齒爲骨之餘 故로 骨病
 即腎液泄而爲汗이오 齒枯薰而痛也라

此段은 不得與傷寒同列一難之中이라 蓋寒
 熱之疾은 自是雜病不傳經之證이라 故로 靈樞
 另列寒熱病爲篇目하고 而詳其刺法이니 其非
 上文傷寒之類를 可知오 不知越人以類而旁及
 之耶라 若即以爲傷寒之寒熱 即大誤也라 又按
 컨대 此即靈寒熱論篇原文이오 而骨寒熱一條
 는 刪去數字니 義遂不備라 經文에 云호대 骨
 寒熱者는 病無所安하며 汗主不休하며 齒未薰
 하면 取其少陰於陰股之絡하고 齒已槁하면 死
 不治라하니 可見此證에 原有輕重之別한데 今
 竟云齒本薰痛이 即骨寒熱이라하여 止有死證
 而無生證矣라 此等乃生死關係大端이 豈可脫
 落疎漏若此라

《懸解》

[1] 中風은 風傷衛也요 傷寒은 寒傷營也니
 詳仲景《傷寒》이요 濕溫은 中濕⁴⁾而發熱者
 也요 熱病은 暑病也니 即仲景喝病이요 溫病
 은 春月而病感者也니 《素問》熱病은 即溫病
 之發於夏月者니 評熱病論에 先夏至者爲病溫
 이요 後夏至者爲病暑 是也라 與此不同이라

[2] 溫病은 各經不同이니 行在於諸經之中하
 야 不知何經之動也니 各隨其經之所在而取之
 라하니 溫病不過六經하야 而經隨日傳하야 六
 日而盡하니 須逐日診之요 難以預定也라 溫病
 一日太陽 二日陽明 三日少陽 四日太陰 五日
 少陰 六日厥陰이니 法詳《素問·熱論⁵⁾》이라

[3] 陽虛陰盛 下則亡陽 故로 可汗愈요 陽盛
 陰虛 汗則亡陰 故로 可下愈라

《闡註》

[1] 傷寒有五者는 指五病俱統於傷寒一門이
 오 而分其所苦之不同也라 風爲陽邪오 寒爲陰
 邪 故先列中風 次列傷寒이라 寒者는 皆冬月
 之正病也오 濕溫發於濕土之令居多오 熱病發

於盛夏오 溫病即仲景傷寒經中春溫病也니 乃
 見前之五邪할새 從本原來니 非比之傷寒熱病
 이라 故各入其法也에 註家以疫症指此溫病은
 非也라

[2] 此는 發明上文五病之脈이라 上四病之脈
 本文自明한데 此獨論溫病至脈行在諸經者는
 經言溫脈必行於諸陽이라 然이나 不知在諸陽
 何經以動이라하니 動者는 脈盛也오 諸陽은
 三陽也니 各隨其經取之也는 刺之也니 如仲景
 云 太陽病之七日以上에 若欲再作經者는 針足
 陽明太陽하고 病初服桂枝湯反煩不解者는 先
 刺風池風府라하니 即此義也라

[3] 陽虛者는 邪實於表而表之陽氣虛也오 陰
 虛者는 邪實於裏而表之陰氣虛也니 此即邪實
 正虛也라 在表汗이오 在裏下니 此正法也라

[4] 傷寒一門이 最爲關係하니 故首節先定其
 名하야 示後人不得紊亂하고 次節明風濕寒熱
 溫五證之脈하고 三節言傷寒表裏自有一定汗下
 之法하야 不可誤行하고 此節明當汗當下之義
 라 寒熱病者는 即傷寒中風之總名也오 皮寒熱
 者는 即仲景所謂太陽之表이니 風用桂枝湯하
 고 寒用麻黃湯하야 汗之而愈라 肌寒熱者는
 即仲景所謂邪在半表半裏이니 用小柴胡湯으로
 和解而愈라 骨發寒熱者는 裏發寒熱也니 即仲
 景謂正陽陽明裏症이니 用承氣湯하야 下之而
 愈也라 乃見先聖後聖이 其揆一也라

中峯云 苟非明達仲景者는 未能明達此義라

《正義》

[1] 素問於風論熱論에 言之甚詳한데 豈得
 獨遺寒論一門 而熱論首言호대 今夫熱病者 皆
 傷寒之類也라하니 既云類傷寒 即有上限專論
 可知라하니 惜乎라 第七一卷은 亡於兵火하야
 亦以見古醫經以傷寒爲外感之統名이니 越人恐
 後世寒溫莫辨 故로 作傷寒有五之論하야 以分
 別其脈證하고 滑氏以變當作辨 是矣라

[2] 中風者는 風寒直傷肌腠也요 風無定體
 하니 偏寒即從寒化하야 風寒之邪 直入肌肉하
 야 而傷其營하면 營血傷即血脈弱하야 而其脈

4) 濕 : 原作'溫' 形近之誤 據《難經集注·五
 十八難》改.

5) 論 : 原作'病' 據《素問·熱論》改.

動必緩이라 陽寸浮者는 乃衛陽外越也요 陰尺弱者는 乃營血受傷也니 然必見熱自發 汗自出 惡寒 惡風 鼻鳴乾嘔等證은 方是風寒이니 中肌腠之的證의脈也니 謂風衛寒傷營者는 非也요 其實寒傷衛 風傷營耳라 或問許學士發微論言호대 風傷衛 寒傷營이라하고 成無己 以降不宗之하고 而子獨謂寒傷衛 風傷營者는 何耶오 曰寒者 太陽之本氣也오 太陽之陽은 發于至陰 而充于皮毛하니 是皮毛一層이 衛所居也오 衛陽虛하면 招外寒이니 致皮毛閉塞而無汗故曰寒傷衛也風在六府屬厥陰肝木厥陰하야 主營血하고 血虛卽招外風이라 夫營血雖與衛氣偕行한대 而究之皮毛一層 爲衛所司하고 肌肉一層은 爲營所宅이라 風入肌肉中하고 而營不守衛하니 是以衛氣洩而 自汗出이라 故曰 風傷營也라 況仲景無汗用麻黃은 明是治衛氣之藥이오 有汗用桂枝는 明是和營血之藥이니 安得淆混哉리오 或問 麻黃治寒傷衛하고 桂枝治風傷營하니 已明其義라. 何以仲景辨脈篇曰寸口脈浮而緊할새 浮卽爲風이오 緊卽爲寒이니 風卽傷衛오 寒卽傷營이며 營衛俱病이면 骨節煩疼하니 當發其汗也라하니 此非風傷衛寒傷營之明證耶라하니 曰 此章本內經寒傷形하고 熱傷氣하며 陽邪傷陽하고 陰邪傷陰이라 하니 統該陰陽二氣而言이니 非謂桂枝主風傷衛하고 麻黃主寒傷營也라 讀書貴乎融貫이니 不可執泥라 此所謂風傷營者는 言風寒之邪直中營中하야 逼其衛氣外洩하니 風寒卽傷營也라 若風溫之邪 首先犯衛하고 衛主氣하니 蓋熱卽傷氣矣라 所謂寒傷衛者는 非不傷營이니 蓋寒閉衛外之氣 卽無汗이라 然이나 亦由斂其營血而然이니 此內經熱傷氣 寒傷形之旨也라 設寒熱莫辨하고 執風爲陽邪而傷衛一語하니 以溫裏和營之桂枝湯治風溫卽謬之甚矣라 可不慎哉인저.

按컨데 此論中風爲風寒入肌腠로 外感也요 若金匱所論中風에 有中府 中藏 中血脈之分은 與此不同이니 不可誤也라 中府之脈은 多浮하고 五色必顯於面하고 惡風惡寒하고 拘急不仁하고 或中身之前하고 或中身之後하고 或中身

之側하니 其病在表에 多着四肢니 雖見半身不隨하고 手足不隨하고 痰涎壅盛하고 氣喘如雷라 然이나 目猶能視하고 口猶能言하니 且外有六經形證也라. 中藏其病在裏하니 多滯九竅라 故脣緩二便閉者는 脾中也오 不能言者는 心中也오 耳聾者는 腎中也오 鼻塞者는 肺中也오 目瞽者는 肝中也라. 中血脈者는 病在半表半裏하니 外無六經之證이오 內無二便之閉라. 但見口眼喎斜하고 半身作痛而已하고 致若體縱不收하고 耳聾無聞하고 目瞽不見하고 口開眼合하고 撒手遺尿하고 失音鼾睡하니 乃本實先撥이라 陰陽樞紐不交하니 爲難治之脫證矣라 此名同而證異者니 不可不變也라.

濕溫者는 暑與濕交合之溫病也라 其因有三하니 先受暑後受濕하야 熱爲濕遏者는 卽其脈陽濡而弱陰小而急한대 濡弱見於陽部는 濕氣搏暑也요 小急見於陰部는 暑氣蒸濕也니 此本經所謂之濕溫也라 若其人常傷於濕因而中喝하야 濕熱相搏하면 卽發爲濕溫이니 證見兩脛冷하고 腹滿又胸하며 頭目痛苦妄言이니 治在足太陰이오 不可發汗이니 此叔和脈經所謂之濕溫也라 有觸時令鬱蒸之氣者는 春分後秋分前에 少陰君火少陽相火太陰濕土三氣合行하야 其事是天本熱也요 而益以日之暑는 日本烈也요 而載以地之溼하야 三氣交動하야 時分時合하니 其分也엔 風動於中하야 勝溼解蒸하야 不覺其苦요 其合也엔 天之熱氣下降하고 地之濕氣上騰하야 人在氣交中에 受其炎蒸하야 無隙可避하니 口鼻受邪하고 着於脾胃하야 脈濡弱舌苔白或絳底하고 嘔逆口乾而不能湯飲하고 胸次粟而滿悶하고 身潮熱汗出稍涼少頃又熱하니 此喻西昌所謂三氣合而爲病之濕溫也라 然其因雖有不同이나 而其病多屬足陽明足太陽하니 蓋濕土之邪同氣相感也요 病在二經之表하면 多兼手少陽三焦요 病在二經之裏하야 多兼手厥陰包絡하야 以少陽厥陰 同司相火故也니 識此면 庶幾知所從治矣리라

傷寒者는 寒傷太陽之膚表也라 華元化曰傷寒一日在皮二日在膚三日在肌四日在胸五日在腹六日入胃하니 是風寒初感之邪 由皮膚毛

竅而入하야 抑遏營氣하고 束於經脈하니 故脈陰陽俱浮盛하고 緊瀦而無汗也라 然必見頭項強痛發熱身疼腰痛骨節疼痛惡風惡寒而喘諸形證하니 方是寒傷膚表之的證的脈也라 夫太陽膀胱中所化之氣는 由氣海循衝任하야 過膈於肺하야 出之於鼻하야 爲呼出氣하고 膀胱所化之氣는 又有內從三焦脂膜하야 出諸氣街循肌肉達于皮毛爲衛外之氣하니 人知口鼻出氣하나 而不知周身毛竅하니 亦無不出氣하니 鼻氣一出하면 卽周身毛竅之氣皆張하고 鼻氣一入하면 卽周身毛竅皆斂하니 若毛竅之氣不得外出하면 卽反入於內하야 壅塞於肺하야 上出口鼻而爲喘하니 故寒傷膚表하면 皮毛之衛氣不得外出하고 卽返於內而上壅爲喘이라 皮毛之內是肌肉이니 寒邪內犯肌肉하니 故周身疼痛이요 邪犯太陽之經脈하니 故頭項腰痛이라 人身皮內之肌는 俗名肥肉이요 肥肉內夾縫中有紋理를 名曰腠理요 又內爲瘦肉하니 瘦肉兩頭卽生筋하니 筋與瘦肉爲一體로 皆附骨之物也니 故邪犯瘦肉하면 卽入筋而骨節疼痛이라 內經曰諸筋皆屬於節者 是也라 但發其表하면 卽寒邪由內及外하고 從毛竅而汗解矣니 故仲景以麻黃湯治之니라

熱病者는 溫熱病概伏氣外感而言也요 脈陰陽俱浮者는 金匱要略云호대 浮脈卽熱이니 陽氣盛故也요 浮之而滑沈之散瀦者는 滑卽陽盛於外하고 瀦卽陰衰於內也라 夫溫者熱之漸이요 熱者溫之甚이니 其實一而已矣라 然內外微甚間에 不可不辨也니 伏氣溫病者는 乃冬日之陽熱이 被嚴寒殺厲之氣所折伏하야 藏於肌骨之間이라가 至春感春陽之氣而觸發하니 熱邪內發陰液已傷이니 卽仲景傷寒論所謂發熱而渴不惡寒之溫病是也라 外感風溫者는 或冬暖不藏하고 或春日氣溫하야 其風偏熱하면 卽從熱化하니 其證脈浮惡風發熱咳嗽者 是也라 若內有伏氣外爲風熱逗引하야 兩陽相合하면 衛氣先傷하고 誤以辛溫表散하야 致成灼熱하면 身重多眠息鼾自汗直視失溲癩瘖諸逆證者니 卽傷寒論所謂惡寒被下被火하야 一逆尙引日再逆促命期之風溫이니 是外感而兼伏氣者也라 王

安道曰溫熱病之脈은 多在肌肉之分하야 而不甚浮하고 且右手反盛於左手者는 良由拂熱在內也요 或左手盛或浮者는 必有重感之風寒이니 否卽非溫病熱病이요 是暴感風寒之病耳라 此溫熱病脈은 一定不移之論也라 何以言之요 素問陰陽應象大論曰左右者陰陽之道路也요 水火者陰陽之徵兆也니 血陰也요 水亦陰也며 氣陽也요 火亦陽也니 以脈體言하면 左屬血陰也요 右屬氣陽也니 此卽血氣之左右水火之徵兆也라 風熱屬陽邪하니 先傷無形之氣요 風寒乃陰邪니 首犯有形之血하니 亦卽內經寒傷形熱傷氣之旨也라 識此하면 當知風熱傷衛하고 風寒傷營하야 可不致執許學士風傷衛一語하야 而以桂枝治溫熱이라하니 遺人天札矣라

按伏氣之理컨대 未有闡發其義者를 請試明之로다 素問陰陽應象大論曰重陰必陽重陽必陰이라하니 故曰冬傷於寒春必病溫이요 春傷於風夏生飧泄이요 夏傷於暑秋必痲瘡이요 秋傷於溼冬生咳嗽라하니 此章經文의 尤重在重陰必陽重陽必陰兩句하니 亦以見天地陰陽之邪 隨人身之氣化感召하야 而非寒能變熱熱可變寒也요 其冬傷於寒春必病溫者는 冬至一陽漸生하야 人身之陽氣內盛하니 冬日嚴寒殺厲之氣가 時中於人하야 入於膚腠하면 其內伏之陽熱이 被寒毒所折하야 深決於骨髓之間하야 至春陽氣盛長하면 伏邪淺者는 亦可隨春陽之氣漸散이로대 伏邪深者는 或遇風寒所遏하고 或因嗜慾所傷하야 內伏鬱結之陽氣하고 爲外邪觸發하면 伏氣旣得發泄한대 遇天氣之陽熱하야 兩熱相干하면 發爲溫病이요 溫之深者는 卽爲熱病이니 此陰必陽也라 夏傷於暑秋必痲瘡者는 夏至一陰漸生하야 人身之陰氣內盛하니 暑乃傷邪하야 陽氣外熾하야 卽裏氣虛寒하고 加以食涼飲冷하면 損其眞陽하야 至秋陰氣盛長之時하야 內伏陰邪欲出하고 外襲陽暑欲入하야 陰陽相持하니 故發爲往來寒熱之瘧瘡하니 此重陽必陰也라 春傷於風夏生飧泄과 秋傷於溼冬生咳嗽者는 乃陰陽上下之相乘也니 夫喉主天氣하고 咽主地氣하며 陽受風氣하고 陰受濕氣하니 傷於風者는 上先受之하고 傷於溼者

는 下先受之라 陽病者는 上行極而下하니 是以春傷於風者는 夏生飧泄하니 風爲陽邪요 泄乃陰病이니 此重陽必陰也라 陰病者는 下行極而上하니 是以秋傷於溼하면 上逆而欬하니 溼乃陰邪요 欬爲陽病이니 此重陰必陽也라 然邪之所注其氣必虛하니 人身之神氣血脈이 皆生於精하야 能藏其精하면 卽血氣內固하야 外邪何由內侵이리오 金匱眞言論曰精者身之本也라 하니 故藏於精者春不病溫이니 攝生者는 可不慎諸호아

溫病者는 瘟疫病也니 古無瘟字 溫與瘟通故也요 疫者役也니 猶徭役之謂니 多見於兵燹之餘나 或水旱偏災之後하니 大卽一城小卽一鎮一村이 遍相傳染者 是也라 乃天地沴厲之氣니 不可以常理測하니 不可以常法治也라 故素問遺篇에 有五疫之刺요 龐安常有青筋索赤脈攢黃肉隨白氣狸黑骨溫의 五色之治이라 疫之爲病에 偏溫偏熱者多하고 偏寒者少하니 然間亦有之하니 如巢源所載從春分以後秋分節前에 天有暴寒하야 皆爲時行寒疫也요 寒疫初病은 寒熱無汗하고 面赤頭痛項強하니 蓋得之毛竅開하야 而寒氣閉之也니 與傷寒異處는 惟傳染耳라 其證多見於金水之年하니 是金水不能斂藏하야 人物應之而爲寒疫也니 若東坡治疫之聖散子요 又寒而兼乎溼者也라 近世吳又可之論疫이요 乃溫熱夾溼者는 故其氣臭如屍요 色蒸晦垢舌本深絳苔如積粉神情昏搖而驚悸脈右盛而至數模糊하니 皆濕熱相搏之徵이니 故宜達原飲以達募原之伏邪也로 至余師愚之清溫敗毒散은 重用石膏하니 又專治暑熱之成疫者也라 越人早鑒於此하야 故曰溫病之脈은 行在諸經하야 不知何經之動也니 各隨其經之所在而取之라하니 其旨深矣라 若黃坤載以素問熱病論之一日太陽二日陽明三日少陽四日太陰五日少陰六日厥陰이니 經隨日傳하야 六日而盡하니 須逐日診之하야 難以豫定爲解요 不知傳經者는 乃正氣以次相傳하야 七日來復하고 周而復始하니 一定不移는 非病氣之傳也라 病氣之傳은 本太陽病不解하면 或入於陽或入於陰하야 不拘時日하고 無分次第하니 始傳於陽

卽見陽明證하고 傳于少陽卽見少陽證하고 傳三陰卽見三陰證하니 故傷寒論曰傷寒二三日陽明少陽證不見者爲不傳也라하니라 況病邪隨經氣之虛而傳陷하니 中風傷寒熱病皆然호대 何以越人於各證之下에 皆有專脈하고 獨於溫病에 而云不知何經之動各隨所在而取之라하니 分明指天地沴厲之氣요 不可以常理測治而言이라 何黃氏之不察妄議謬之甚矣라

[3]傷寒은 爲此五病之通稱인댄 但傷寒有汗出而愈下之卽死者와 有下之而愈汗出卽死者는 其故何歟요 蓋寒邪外襲爲陰盛하면 可汗而不可下요 熱卽內熄爲陽盛하면 可下而不可汗이니 王叔和傷寒序例曰桂枝下咽에 陽盛卽斃요 承氣入胃에 陰盛以亡이라하니 卽此義也라

[4]寒熱病候之如何者는 言忽寒忽熱之病이니 當候病之所在也라 皮寒熱者는 言寒熱在皮니 邪之中人最淺者라 肺主皮毛開竅於鼻하니 故邪在皮毛하면 卽皮不能着物毛髮焦乾하고 而鼻枯藁不澤也며 不得汗은 營衛不和也라 肌寒熱者는 皮內卽肌肉이니 肌肉之邪由皮膚而入하니 故皮膚痛也라 脾主肌肉開竅於口하니 故肌有邪면 卽脣舌皆受病也라 骨寒熱者는 肌肉之內骨也니 骨受邪하면 其病最深故一身之中無所得安也라 腎主骨又主液하고 齒爲骨之餘니 故骨病卽腎液泄而爲汗하고 齒枯藁而痛也라

按此節乃靈樞寒熱病篇文이요 而與以上五種傷寒有間하니 然皆經氣之爲病에 宜取三陽少陰之絡以去邪하고 雖與傷寒各異나 而皮膚肌肉骨髓之層次經氣卽一是니 越人列此一節於五種傷寒之後者는 正示人以內傷雜病與外感之形證不同하니 不可誤治耳니라

《匯海》

[1-4]變은 當作辨이니 謂分別其脈也라 上文은 言傷寒之目이오 此言其脈之辨也라 陰陽字는 皆指尺寸而言이라 受病爲虛요 不受病者爲盛이니 唯其虛也 是以邪湊之하고 唯其盛也 是以邪不入하니 卽外臺所謂 表病裏和 裏病表和之謂니 指傷寒傳變者而言之也라 表病裏和

汗之何也며 而反下之면 表邪不除裏氣復奪矣요 裏病表和 下之何也며 而反汗之면 裏邪不退 表氣復奪矣니 故云死라 所以然者는 汗能亡陽요 下能損陰也니 此陰陽字는 指表裏言之라 經曰 誅伐無過 命曰大惑 此之謂歟인저.

王道安曰 寒邪在外爲陰盛이니 可寒이요 熱邪在內爲陽盛이니 可下니라

陸九芝曰 天爲清虛之府오 人爲虛靈之體니 不爲病也라 有病卽爲實은 猶言虛氣之中 有物焉以實之로 非強實壯實之謂也라

丁履中注에 傷寒有五者는 指五病俱統於傷寒一門이오 而分其所苦之不同也라 風爲陽邪오 寒爲陰邪 故先列中風 次列傷寒이라 寒者는 皆冬月之正病也오 濕溫發於濕土之令居多오 熱病發於盛夏오 溫病卽傷寒論中春溫病也니 注家以疫症指此溫病은 非也라

徐靈胎注에 寒熱은 忽寒忽熱者言이오 候之는 言候其病在何處也라 寒熱在皮는 邪之中人에 最淺者也라 邪氣在皮하야 不能着物也라 肺主皮毛 開竅於鼻 故로 皮有邪卽 毛髮焦乾而鼻枯藁不澤也라 不得汗은 榮衛不合也라 肌寒熱皮膚痛者는 肌肉之邪 由皮膚而入 故로 痛이라 脾主肌肉 開竅於口 故로 肌有邪卽唇舌이 皆受病也라 骨受邪卽病最深 故로 一身之中 無所得安也라 腎主骨又主液이오 齒爲骨之餘 故로 骨病卽腎液泄而爲汗이오 齒枯藁而痛也라 按此段은 不得與傷寒同列一難之中이라 蓋寒熱之疾은 自是雜病不傳經之證이라 故로 靈樞另列寒熱病爲篇目하고 而詳其刺法이니 其非上文傷寒之類를 可知오 不知越人以類而旁及之耶라 若卽以爲傷寒之寒熱 卽大誤也라

日醫騰萬卿曰 獨舉脈狀以分五病之幟한대 卽當有正鵠以便爲治也라 仲景傷寒論은 皆舉此篇하야 引伸觸類하야 殆無餘蘊하니 學者察諸인저

〈疏證〉

[1](徐) 傷寒은 統名也요 下五者는 傷寒之分證也라 按王叔和 編次仲景傷寒論略例云호

대 中而卽病者는 名曰傷寒이요 不卽病者는 寒毒藏于肌膚하야 至春變爲溫病이요 至夏變爲暑病이니 暑病者는 熱及重于溫也라 又第四篇에 先序痙濕喝三證하니 痙卽傷寒之變證이요 喝卽熱病이요 濕卽次篇所謂濕溫也라 又傷寒論 太陽上篇에 亦首舉中風傷寒溫病證脈各異之法하고 素熱病論云호대 今夫熱病者는 皆傷寒之類也라하고 又云호대 凡病傷寒而成溫者는 先夏至日爲病溫이요 後下肢日爲病暑라 하니 卽此五者之病을 古人皆謂之傷寒이라 與難經淵源一轍한대 後世俗學이 不明其故하고 聚訟紛분하야 終無一是하니 是可概也니라

按肘後方曰 傷寒時行溫疫은 三名一種耳라 又曰 貴勝雅言 總名傷寒이요 世俗因號爲時行이라 千金方 引小品方曰 論治者 不判傷寒과 與時行溫疫이면 爲異氣耳라 云호대 傷寒은 雅士之辭하야 天行溫疫은 是田舍間號耳요 不說病之異同也니 是可證徐說矣라 有變之變은 本義曰 當作辨이니 謂分別其脈也라 誤라 蓋變者는 謂其有各異不耳라

[2](楊) 中風之脈은 關以前浮滑하고 尺中濡弱者也요 小는 細也요 急은 疾也요 輕手按者는 名浮요 重手按者는 名沈也라 (滑) 上文言傷寒之目이요 此言其脈之變也라 陰陽者는 皆指尺寸而言이라 (徐) 傷寒論云호대 太陽之爲病脈浮라하고 又云호대 浮卽爲風이라 하니라 靈邪氣藏府病形篇云호대 滑者는 陽氣盛하고 微有熱이라하고 又素平人氣象論云호대 脈滑曰病風이요 陽盛卽陰虛하니 故陰脈濡而弱也요 濕熱傷陰 하니 故陽脈無力而濡弱이요 陰脈卽邪盛而小急이라 寒邪中人에 營衛皆傷하니 故陰陽俱盛이니 緊者는 陰脈之象이라 傷寒論云호대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이라하고 又云호대 諸緊爲寒이요 澁者 血氣爲寒所凝하야 不利也라하니라 靈邪氣藏府病形篇에 澁者多血少氣하고 微有寒이라 按溫病所現何脈이요 越人無明文하고 當以傷寒論補之하니 論云호대 風濕爲病 脈陰陽俱浮 是也라

按傷寒論曰 太陽病發熱汗出 惡風脈緩者 名曰中風이요 又曰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

者熱自發 陰弱者汗自出이요 又曰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體痛嘔逆 脈陰陽俱緊者 名爲傷寒이라하니 并此段之意也라 謝縉孫曰 按仲景例컨대 風濕은 與難經中風脈同하고 而無濕溫之說하니 此說誤矣라 風濕은 溫病之類證이요 濕溫見于玉函經한대 曰 濕溫은 其人常傷于濕하고 因而中暍하여 濕熱相搏 卽發濕溫이라 熱病之脈은 沈遲散溢하니 溢字恐衍이라 蓋熱病之脈은 重按卽散大하고 輕按卽滑利也한대 滑溢相反하여 無并見之理라 素問生氣通天論曰 冬傷于寒 春必溫病이라하고 次注에 寒不爲釋하고 陽拂于中하면 寒拂傷持하여 爲溫病이라 又熱論曰 凡病傷寒而成溫者는 先夏至日者 爲病溫이라하고 傷寒論幹 太陽病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이라하니 亦是與此段同이라 楊注曰 溫病卽是疫癘之病이요 非爲春病也라하니 殆爲謬解라 行在諸經者는 寒毒之藏于皮膚者 浸淫而後爲病하니 故不知其定在何經也요 其脈之現象은 未知與風濕相類否라 古經欠詳하니 姑据徐說이라

[3](徐) 滑氏本義에 引外臺語하여 謂表病裏和는 爲陽虛陰盛이요 表和裏病은 爲陽盛陰虛라하고 傷寒例에 亦有陽盛陰虛는 汗止卽死下之卽愈하고 陽虛陰盛은 汗之卽愈 下之卽死之文이라 成無已注 卽以陽邪乘虛入府하여 爲陽盛陰虛요 陰邪乘表虛 客于榮衛하여 爲陽虛陰盛이라하고 活人書에 以內外俱熱을 爲陽盛陰虛요 內外俱寒을 爲陽虛陰盛이라하고 惟王安道溯洄集에 卽以寒邪在外 爲陰盛可汗이요 熱邪內熾 爲陽盛可下라하니 此說最爲無弊니라

按傷寒例又曰 桂枝下咽에 陽盛卽斃하고 承氣入胃에 陰盛以亡이라하니 据此컨대 表寒裏熱之解爲確이라

[4](楊) 五藏六府 皆有寒熱한대 此經惟出三狀하고 余皆闕也라 (滑) 此蓋內傷之病으로 因以類附之라 (徐) 寒熱在皮는 邪之中人 最淺者라 肺主皮毛 開竅于鼻하니 故皮有邪면 卽毛髮焦乾 而鼻枯藁不澤也며 不得汗은 營衛不和也라 脾主肌肉하고 開竅于口하니 故肌有

本義	非其時而有其氣하야 一歲之中에 病多相似者는 謂之溫病이라
集注	據此經言溫病卽 是疫癘之病이요 非爲春病也니 疫癘者謂一年之中에 或一州一縣若大若小 俱病者是也라
經釋	至於溫病之變 卽叔和傷寒例에 有變爲溫瘡 風溫 風毒 溫疫 等에 各詳脈證이니 亦可參考인저
懸解	溫病은 春月而病感者也니 <素問>熱病은 卽溫病之發於夏月者니 評熱病論에 先夏至者 爲病溫이요 後夏至者爲病暑 是也라 與此不同이라
闡注	溫病卽仲景傷寒經中春溫病也니 乃見前之五邪할새 從本原來니 非比之傷寒熱病이라 故各入其法也에 註家以疫症指此溫病은 非也라
正義	溫病者는 瘧疫病也니 古無瘟字 溫與瘧通故也요 疫者役也니 猶徭役之謂니 多見於兵燹之餘나 或水旱偏災之後하니 大卽一城小卽一鎮一村이 遍相傳染者 是也라
疏證	素問生氣通天論曰 冬傷于寒 春必溫病이라하고 次注에 寒不爲釋하고 陽拂于中하면 寒拂傷持하여 爲溫病이라 又熱論曰 凡病傷寒而成溫者는 先夏至日者 爲病溫이라하고 傷寒論幹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이라하니 亦是與此段同이라 楊注曰 溫病卽是疫癘之病이요 非爲春病也라하니 殆爲謬解라
衷腋	溫病卽仲景傷寒例中所言한 溫瘡 風溫 溫毒 溫疫의 四溫病也라

邪면 卽脣舌皆受病也라 骨受邪면 卽病最深하니 故一身之中 無所得安也라 腎主骨 又主液하고 齒爲骨之餘니 故骨病 卽腎液泄而爲汗齒枯藁而痛也라

按此段컨대 全原乎靈樞寒熱病篇 而文多不同이니 鼻藁脣藁下에 經有腊者하고 齒本藁痛은 作齒未稿하고 取其少陰于陰股之絡은 齒已稿死不治라하니라 先子曰 寒熱之病은 卽虛勞寒熱之謂라하고 素問脈要精微論曰 風成爲寒熱이라하고 又曰 沈細數散者는 寒熱也라하니라 又平人氣象論曰 寸口脈沈而喘을 曰寒熱이라하고 又風論曰 其寒也卽衰飲食이요 其熱也卽消肌肉이니 故使人怵慄 而不能食을 名曰寒熱이라 又玉機真藏論曰 發寒熱 法當三歲死라하고 靈樞論疾診尺篇曰 尺膚炬然하고 先熱後寒者 寒熱也요 尺膚先寒하고 久之大而熱者도 亦寒熱也라 又官能篇曰 寒熱淋露 以輸異處라하고 史倉公傳曰 濟北王侍者韓女病에 腰背痛 寒熱 衆醫皆以爲寒熱이라하고 魏志華佗

傳注 引佗別傳曰 有婦人長病經年을 世爲寒熱 注病者也라하니 可觀古以虛勞骨蒸等을 稱寒熱病矣니라

〈古義〉

[1-2]按內經云 熱病者는 皆傷寒之類니 由是觀之컨대 卽所謂熱病은 其所指義尤廣矣요 而至其論病 卽唯言其傳經과 及兩感等症하고 未嘗明分有五證之異하니 其命名亦僅舉溫暑二病耳라 扁鵲始論五種傷寒者는 壹唯於內經熱論中하야 以其不言脈象하니 故有所感之邪에 立其病名與脈焉이라 名者人治之大者니 名不正卽言不順하고 言不順卽事不成하니 夫醫事不成 卽民病無所措手足이라 其傷寒有機하며 指病因別之하니 卽內經所謂諸熱病是也라 五病中之傷寒은 卽眞傷寒也요 其餘風熱溫濕四病者는 類傷寒也니 卽內經所謂皆傷寒之類是也니라 病俱熱證하고 卽其所苦 亦當無異나 然謂各不同者는 蓋由有陰陽表裏淺深之分故爾라 內經既舉其傳經之證하야 詳且盡矣나 然不言熱病有五邪之別하니 於是扁鵲姑置其所苦 不辨하야 獨舉脈象하야 以分五病之職하니 卽當有正호하야 以便爲治也라 仲景傷寒論은 皆據此篇引伸觸類하야 殆無餘蘊하니 學者察諸인저

[3]凡治傷寒에 有汗吐下三法하니 此卽言汗下二法 而不言及吐者는 蓋寒邪在上焦爲胸煩하면 乃當行吐하니 吐是所罕行이라 內經云 未滿三日者는 可汗而已요 其滿三日者는 可泄而已라하고 未嘗言及吐法하니 故扁鵲置而不論하고 獨舉汗下二法하야 以論之耳라 所謂陽虛陰盛은 言邪在表요 陽盛陰虛는 言邪在裏하니 然以常例推之하야 其義難通 何者오 陽虛陰虛는 共指邪溼之地而言이요 其謂陰盛陽盛은 言正氣偏盛하니 由是觀之컨대 卽兩虛者는 謂正氣方虛요 兩盛者는 謂經氣偏盛이라 崑山王氏云호대 寒邪外客에 非陰盛而陽虛乎아 熱邪內熾에 非陽盛而陰虛乎아라하니 似是而非라 仲景云호대 桂枝下咽 而陽盛卽斃하고 承氣入胃 而陰盛卽亡이라하니 此亦省文으로 義

本非異라 滑註以陰陽字爲表裏하니 大得其旨故로 引外臺所謂表病裏和 裏病表和라하니 以通其義나 然和自和盛自盛은 豈可混同乎아 且以虛爲邪盛之處卽可하니 以盛爲氣和之地卽未可하니 何者오 盛固爲無邪處니 然此諸經之和卽有餘하니 故扁鵲不言和而言盛하니 可以見已라 經云 邪氣盛卽實하고 精氣奪卽虛라하니 此亦一義라 王氏以陽虛陰虛로 爲陽經陰經之虛라하고 以陽盛陰盛으로 爲陽熱陰寒之邪라하니 陰陽字分爲二義하니 似反字例姑且舉之하야 以의知者折낭이라

[4]此一節見靈樞第二十一篇인대 扁鵲裁附諸此者는 蓋傷寒之爲病은 亦必寒熱之勢로 以知其苦하니 而微邪之淺深 故로 邪在皮膚니 卽皮不可近席하고 且不得汗하며 在肉分卽脣舌乾無汗하고 在骨屬卽汗注而不止하고 齒本藁라 蓋在表者는 心肺主之하고 在中者는 脾胃主之하고 在裏者는 腎肝主之하니 是扁鵲小異採摘古經而附焉이요 滑伯仁以爲內傷寒熱과 王文潔以爲外感寒熱은 皆非是니라

〈裏腋〉

[1]中風은 傷風也니 汗出惡風을 謂之傷風이요 無汗惡寒을 謂之傷寒이요 濕熱相搏 一身盡痛을 謂之濕溫이요 冬傷於寒 至夏而發者 謂之熱病이요 至春而發者 謂之溫病이라 經曰 冬感寒春發溫이요 又曰 先夏至爲病溫이요 後夏至爲病暑 是也라 病暑는 卽熱病也라

[2]陰陽은 指尺寸也요 傷風之脈에 陽浮而滑은 風傷於衛하니 衛爲氣 居於表也요 陰濡而弱者는 邪在表 不在裏也라 傷寒之脈에 陰陽俱盛而緊瀦하니 緊是寒傷榮이요 瀦主無汗也라 濕溫之病은 濕熱相搏하고 陰陽相錯하야 故其脈에 陽濡而弱은 邪傷乎氣也요 陰小而急은 血亦受病也라 熱病之脈에 陰陽俱浮는 輕舉卽滑하니 熱浮於外也요 重按卽散瀦하니 津液虛少也라 溫病卽仲景傷寒例中所言한 溫瘡 風溫 溫毒 溫疫의 四溫病也라 其脈行在諸經하니 當審其所動하야 以治之耳라

[3]滑氏曰 受病爲虛요 不受病者爲盛이니

唯其虛也에 是以邪湊之하고 唯其盛也에 是以邪不入하니 卽外臺所謂表病裏和裏病表和之謂는 指傷寒傳變者而言之也니 表病裏和는 汗之可也며 而反下之면 表邪不除하고 裏氣復奪矣라 裏病表和는 下之可也며 而反汗之면 裏邪不退하고 表氣復奪矣라 故로 云死라 所以然者는 汗能亡陽하고 下能損陰也니 此陰陽者는 指表裏言之라 經曰誅伐無過 命曰大惑이라 하니 此之謂歟인저 (搏) 按컨대 王安道曰 寒邪外客에 非陰盛而陽虛乎아 熱邪內熾에 非陽盛而陰虛乎아라하고 仲景曰 桂枝下咽에 陽盛卽斃하고 承氣入胃에 陰盛乃亡이라하니 可不謹且辨乎아

[4]靈樞寒熱病篇曰 皮寒熱者는 不可附席 毛髮焦 鼻槁腊 不得汗하니 取三陽之絡하야 以補手太陰하고 肌寒熱者는 肌痛 毛髮焦而脣槁腊 不得汗하니 取三陽於下하야 以去其血者는 補足太陰以出其汗하며 骨寒熱者는 病無所安 汗注不休 齒未槁하니 取其少陰於陰股之絡한대 齒已槁死不治라 (搏) 按컨대 藁는 乾枯也요 病無所安者는 謂一身無所安也라 據內經컨대 其治一補一瀉는 蓋外感內傷相兼之病也라

【考察】

本難에서 敍述하는 '傷寒有五'와 《素問·熱論》의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의 概念은 相同하다. 《素問》에 이르기를 '人之傷於寒也 卽爲病熱'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爲病溫 後夏至日者爲病暑'에서 가이 볼 수 있듯이 '傷寒'을 실로 多種의 外感熱病을 總稱하는 것이다. '所苦各不同'에서 類推하자면 發病 季節이 같지않고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的 分類가 있으며 다섯 가지 中에 '傷寒'과 '中風' '濕溫' 등이 竝列된 것으로 보아 마땅히 具體的인 病名에 歸屬했다. '傷寒有五'의 概念과는 다르니 廣義와 狹義의 區分이 있다고 하겠다. 이중에서 溫病에 대한 論難이 많은데 '疫癘之病'으로 본 곳과 '春病'이라고 보아 見解가 서로 다른데 이에 대해 살펴

보았다.

'陽虛陰盛'과 '陽盛陰虛'의 의미에 대해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本義	卽外臺所謂 表病裏和(陽虛陰盛) 裏病表和(陽盛陰虛)之謂라
集注	此是燥暑暄의 手六經以通天氣하야 病卽不體重惡風而有燥라 若以承氣下之卽愈로대 服桂枝取汗 汗出卽死라하고 此是風寒濕의 足六經以通地氣하야 病卽體重惡寒하니 若以桂枝取汗 汗出卽愈로대 服承氣下之卽死라 하였다
圖注	《本義》와 같다
經釋	惟王安道溯洄集에는 卽以寒邪在外爲陰盛은 可汗이오 熱邪內熾爲陽盛은 可下라하니 此說最爲無弊라
闡注	陽虛者는 邪實於表而表之陽氣虛也오 陰虛者는 邪實於裏而表之陰氣虛也라
正義	《經釋》과 같다.
疏證	《經釋》과 같다.
古義	《本義》과 같다.
夏腋	《本義》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寒熱病은 寒熱症狀이 皮 肌 骨 세 部位에 나타나는 것에 따라 區分한 것으로 輕重淺深의 差異가 있다. 이는 《靈樞·寒熱病篇》에 根據하고 있는데 傷寒으로 보는 見解와 雜病으로 보는 見解가 있다.

經釋	蓋寒熱之疾은 自是雜病不傳經之證이라
闡注	此節明當汗當下之義라 寒熱病者는 卽傷寒中風之總名也오 皮寒熱者는 卽仲景所謂太陽之表이니 風用桂枝湯하고 寒用麻黃湯하야 汗之而愈라 肌寒熱者는 卽仲景所謂邪在半表半裏이니 用小柴胡湯으로 和解而愈라 骨發寒熱者는 裏發寒熱也니 卽仲景謂正陽明裏症이니 用承氣湯하야 下之而愈也라 乃見先聖後聖이 其揆一也라
正義	越人列此一節於五種傷寒之後者는 正示人以內傷雜病與外感之形證不同하니 不可誤治耳니라
古義	蓋在表者는 心肺主之하고 在中者는 脾胃主之하고 在裏者는 腎肝主之하니 是扁鵲小異採摛古經而附焉이오 滑伯仁以爲內傷寒熱과 王文潔以爲外感寒熱은 皆非是니라
夏腋	據內經컨대 其治一補一瀉는 蓋外感內傷相兼之病也라

IV. 結 論

難經의 疾病條에 관한 내용중 五十七, 五十八難에 대해서는 內經의 學說을 그대로 說明하는 경우와 內經의 學說을 繼承 發展시킨 경우로 볼 수 있다.

五十七難에서는 《內經》에서 말한 泄瀉와 痢疾을 통칭하여 胃泄 脾泄 大腸泄 小腸泄 大瘕泄의 五泄로 나누어 間략함을 취하였고, 이에 다시 臟腑名을 붙이고 症狀을 열거해 쉽게 分別할 수 있게 했다.

五十八難에서는 傷寒有五라하여 傷寒에는 廣義와 狹義의 區分이 있는데, 廣義의 傷寒은 《素問·熱論》에서 말하는 바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라 한 것 인卽 外感熱病의 總稱이 되며, 또한 本文에서 말하는 바 '傷寒有五'의 傷寒으로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을 통칭하며, 狹義의 傷寒은 단지 外傷寒邪를 말하는 것으로 곧 本文에서 말하는 바 '傷寒之脈'의 傷寒이다. 이로써 外感病의 寒熱의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陽虛陰盛하면 汗出而愈 下之卽死하고 陽盛陰虛하면 汗出而死 下之卽愈라하여 治法의 상세함을 말하였다.

그리고 皮膚 肌肉 骨寒熱에 이르기까지 邪의 輕重淺深의 차이에 따라서 病이 되는데, 이는 《靈樞·寒熱病篇》에 근거하고 있다.

이상으로 《難經》 五十七, 五十八難은 五泄 傷寒등 疾病部分에 관하여 說明하고 있는데, 各家의 注釋을 통해 考察 研究해본 결과 《難經》이 《內經》의 學說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발전시켰음을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千炳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33

2.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3.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서울, 一中社, 1991.

4. 王九思, 難經集注, 臺北, 臺北中和書局, 1985.

5. 張世賢, 校訂圖注難經, 臺北, 大孚書局, 1976.

6. 徐大椿,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7.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8. 丁錦, 古本難經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9.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10.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11.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12. 騰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3. 加藤宗博, 盧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14.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79.

15.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6. 南京中醫學院, 難經譯釋, 서울, 圖書出版鼎談, 1993.

17.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18.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官, 1967.

19.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20. 尹暢烈, 陰陽五行論의 本質과 內容에 關한 考察, 大田大學校論文集 3卷 2號, 1992.

21. 黃維三, 難經發揮, 臺北, 中國醫藥學院,

- 1989.
22.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
23. 民衆書林編輯局編, 漢韓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6.
24.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25.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